



강성연의 '빛-푸른 밤'. 작가 제공

밤하늘 달빛·돌담 위 생명 빛으로 기록한 치유 여정 강성이 첫 개인전 19일까지

그는 자신의 회화 작업에 대해 “내면을 담아내는 구도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숲의 빛을 표현하기 위해 아크릴 물감을 여러 번 겹쳐 올리거나 붓질로 거친 질감의 돌담을 하나씩 쌓고 유리창의 물방울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작업이 “어제의 상처 위에 오늘의 위로를 덧칠”하는 거라고 했다.

이달 10~19일 제주시 아라깅러리(간월동로 39)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있는 강성이 작가. '숨, 그리고 삶: 빛이 머무는 곳'이란 제목의 개인전에서 치유의 여정을 담은 일기장 같은 작품들을 펼치고 있다.

전시는 밤의 고독에서 시작해 물방울의 정화에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화면 속 고양이와 마주하는 달빛('빛-푸른 밤')은 고독마저 빛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돌담 위의 작은 생명('유회-꿈꾸는 순간')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일상의 생동감을 깨운다. 풍환적인 숲의 빛과 신비로운 동물들('심원-빛')은 현실의 굴레를 벗어 던진 태초의 자유로움을 전한다. 숲, 밤하늘, 창가를 감도는 빛은 생명과 희망의 노래다.

작가는 “이 전시는 삶의 무게가 버거워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던 순간, 나를 다시 숨 쉬게 했던 창밖의 시선과 그에 따른 감정의 시간을 기록한 서사”라며 “캔버스 위에 쌓아 올린 시간들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따뜻한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절반의 제주아트플랫폼 정상화 언제쯤

문예재단 매입 극장 건물
3·5층 일부 연습공간 반면
4층과 6·8층은 시설 폐쇄

리모델링비 추가 확보 차질
공간별 운영비 마련도 과제

제주시 원도심 옛 아카데미 극장에 들어선 제주아트플랫폼 공간 활용이 50% 정도에 그치고 있다. 리모델링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며 지상 1~8층 기준으로 폐쇄 시설이 전체의 반을 차지한다.

1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은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이다. 이 중에서 지하 1~3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 1층 제주예술인복지센터(시범 운영)·휴게 음식점, 2층 재단 사무실, 3층(일부) 공연예술연습공간, 5층(일부) 다목적홀이 자리 잡았다. 반면 지상 3층 일부, 지상 4층, 지상 5층 일부, 지상 6~8층은 잠겨 있다.

2025년 2월 정식 개관한 공연예술연습공간의 가동률은 80%대. 같은 층에 대형 연습공간을 더 만들려는 계획이었으나 여태껏 걸음을 떼지 못했다. 지상 4층 재단 자료실, 지상 5층 컨퍼런스홀, 지상 7층 미디어 작품 감상실·예술자료실 설치도 현재로서는 계획일 뿐이다.

문화가 쏘지

제주문화관 '영화이야기' 개최

제주문화관은 이달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4회에 걸쳐 '고회영 감독과 함께하는 영화이야기'를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매회 오후 7시부터 영화이야기(해설), 영화 상영, 작품 읽기와 관객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밀양'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드라이브 마이 카' '오베라' 등 소설이 원작인 영화를 감상하고 서로 다른 예술 언어로 이야기를 구현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제주문화관 누리집 참고.



제주시 원도심 옛 아카데미 극장을 활용한 제주아트플랫폼. 진선희기자

재단은 지난 2월 제주아트플랫폼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제주시 원도심 문화 시대를 열고 관계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공간 사용 계획에 맞춘 예산이 따라야 한다.

제주아트플랫폼 사업비는 108억 원 규모의 옛 아카데미 극장 매입비를 합쳐 2023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당시 몰가 상승분을 반영한 총 188억5000만원이었으나 이미 그 비용을 초과했다. 지금까지 들인 예산은 국비 20억원, 도비 31억원, 재단 육성기금 138억5000만원 등 189억5000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실제 사업비가 총 259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이전

예상가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 공연예술연습공간 추가 조성 시 동일 사업으로 국비를 따내기 어려운 상황여서 재단은 30억원 중 10억원을 내년 도비로 마련하는 안을 세웠다.

재단 관계자는 “그간 국비 30억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반려하고 있어서 제주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앞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주아트플랫폼 사용 계획을 짰지만 단순히 총별 리모델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공간마다 운영비 확보 가능 여부,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해야 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임철우 소설가 초청 북토크

풍납작은도서관이 오는 7월 18일 오후 4시 임철우 소설가를 초청해 '돌담에 속삭이는 이야기'란 이름의 북토크를 연다.

임철우 작가는 '그 섬에 가고 싶다' '봄날' '백년여관' 등의 소설이 개인의 삶과 비극적인 현대사, 시대적 아픔을 긴밀하게 연결 짓는 서사를 담아 왔다. 제주4·3을 다룬 '돌담에 속삭이는'도 내놨다. 신청 링크(https://naver.me/5jXXvK0R)로 선착순 접수.

영화 '남태령' 무료 상영회

제주여민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제주연동 1관에서 영화 '남태령' 무료 상영회를 연다.

제주여민회는 '남태령'에 대해 “12·3 내란 이후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 연대를 따라가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이끈 민주주의의 또 다른 가능성을 리얼리티 아카이브 형식으로 담아냈다”고 했다. 상영 후 김현지 감독과 향연 활동가의 관객과의 대화도 이뤄진다. 문의 070-4047-9130.

영화觀 고독의 오후

죽거나 혹은 아프거나

소가 죽는다. 우리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도축의 방식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죽음을 이르는 시간을 전지 당하며 그렇게 죽는다. 소를 죽이는 이는 투우사라는 직업을 가진 인간이다. 뜨거운 오후의 햇살이 사그라들고 피아의 식별이 불가능해지는 개와 늑대의 시간 이전, 기묘한 침묵과 기이한 함성이 뒤얽힌 시간이 '고독의 오후'이다.

알베르 세라 감독의 다큐멘터리 '고독의 오후'는 소와 투우사 사이 죽음을 두고 벌어지는 시간을 집요하게 바라보는 영화다. 수많은 전쟁 영화와 호러 영화, 총과 칼로 죽음을 전지하던 액션 장르의 영화들을 봐왔음에도 이 영화의 죽음을 대하는 것은 놀랍도록 생경한 경험이었다. 이 영화는 그저 두 생명체의 사투를 관객들에게 증거처럼 내미는 영화다. 아직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관객들은 소의 눈에서 무구함과 공포를 엿본다. 경기를 기다리는 관객의 마음 속에 측은함과 죄책감이 자리하기 시작하면 영화는 이내 소의 적수를 비춘다. '고독의 오후'의 또 다른 주인공 안드레스크 레이는 스타 투우사다. 옷 위에는 흉건한 피의 흔적이 묻어 있고 그의 웃음 익숙하게 벗겨지고 다시 갈아 입혀진다. 이제 아름다운 투우사가 무구한 소를 죽음으로 몰고갈 것이다. 당신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이 소가 저 인간에 의해 죽음을 당할 것이고 수많은 인간들이 소의 죽음을 응원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나는 극장 좌석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다. 무구한 소의 죽음을 지켜볼 용기가 없었고 이 관람이라는 행위가 불쾌한 관음에 동조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영화에서 눈을 돌 수 없는 동시에 눈을 땔 수



영화 '고독의 오후'.

도 없었다. 영화는 강력하게 관객을 그곳으로 데려다 놓았고 어떤 변명이나 침언도 없이 자신이 목도한 현장을 내놓고 있었기에, 관객들의 환호성은 멈추지 않았으며 투우사 안드레스크 레이는 점점 더 미쳐가는 것 같았다. 소에 의해 인간이 죽기를 바라기까지 하던 나는 외롭고 성실하게 그리고 무희와 무당을 닮은 몸짓으로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인간의 육체에서 이상한 측은함을 느꼈다.

죄책감과 불편함, 측은함과 아름다움이 뒤섞인 채로 소가 죽고 인간이 죽을 뻔 하며 경기가 끝나고 영화도 끝이 났다. 화면은 이내 캄캄한 어둠으로 뒤바뀌고 죽음 전에 내쉬던 소의 거친 숨소리와 죽음 앞에 험악하던 인간의 바쁜 숨소리가 귓가에 잔상처럼 남았다. '고독의 오후'를 보는 일은 야만의 행위를 멈추라는 항의로 남을 수도 있고 죽음 앞에서 위력과 무력을 실감하는 체험일 수도 있으며 영화라는 매체가 어떤 시간을 붙잡아 포박하는지를 목도하는 경험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의미에서 '고독의 오후'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에도 찾아오는 영화가 될 것 같다. 쉽게 통합할 수 없는 시간들 앞에서는 당연히 아물지 않는 일 또한 필요할 것이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박호형

(現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일도2동주민자치위원장 문상익
- 일도2동통장협의회 회장 박정렬
- 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 강정보
- 일도2동지역자율방재단장 오영진

당 선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3선) 제주시 일도2동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 최다득표(8,550표)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제주시 일도2동)으로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사)대한노인회일도2동분회장 강창근
- 새마을지도자일도2동부녀회장 박용숙
- 일도2동장애인지원협의회장 이순실
- 일도2동방위협의회장 강태남

- 일도2동마을회장 백영종
-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장 김기호
- 일도2동민속보존회장 조창운
- 일도2동연합청년회장 장순표
- 일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상훈